

영광군, 부군수와 MZ세대 '청렴 통통' 소통의 장

지난 1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청렴생태계 조성 방안 고민 김장오 부군수, 청렴·반부패·직장 내 갑질 등 사례 전달

영광군은 지난 15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부군수와 영광군 MZ세대의 공직자들과 함께 청렴생태계 조성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부군수와 MZ세대의 청렴 통통(通通)"이라는 이름으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영광군청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 이른바 'MZ세대' 공직자가 지난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대 간 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장오 부군수는 그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

을 바탕으로 청렴, 반부패, 직장 내 갑질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전달하였으며, 청렴실천의 시작은 친절이라며 민원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민원인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배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렴실천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직원들이 공직생활 중 불편한 점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 '힐링선물'

신북중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영암군은 지난 16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희망이 꽃 피는 영암꿈나무' 공연의 일환으로 신북중학교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과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건강과 생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북중학교는 48명의 전교생이 참여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대도시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특히, 전교생이 참여하여 하모니를 이루는 데서 그 의미가 깊다.

신북중학교 뮤즈 윈드 오케스트라단은 "학생들이 갖고 싶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해서 항상 아쉬웠는데 영암군청의 초대로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아쉬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고 학생들 또한 굉장히 뿌듯해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우승희 군수는 "영암의 미래인 학생들이 갖고 싶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우리군의 어른들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주민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10월 20일 군청서 개최...내달 5일까지 상담 사전 예약

함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15일 "행정·법률, 복지혜택 등 군민의 생활 속 문제들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분야별 상담반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주민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현장민원 상담 제도이다.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등 6개 협업기관이 함께 참여해 근로개선,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수혜, 지적(地籍) 분쟁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중 해결이 가능한 고충이나 문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 과정을 거쳐 처리된다.

함평=김광훈기자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10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전 예약이 어려운 경우 당일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함평 군민뿐 아니라 장성군, 광주 광산구 등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민들의 고충이 말끔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살은 작은 관심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신안군, '세계 자살예방의 날' 생명존중문화 기념행사 개최

신안군은 지난 14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이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매년 9월 10일로 제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부터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자살 인식도 조사 O, X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여 자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자살예방 홍보관을 운영하여 ▲우울선별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스트레스 측정 ▲VR치유체험 ▲자살예방 상담전화 안내를 실시하는 등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친환경선박 기술 실증 거점으로 발돋움 해상테스트베드 건조 착수...2025년부터 기자재·대체연료 실증·성능평가



목포시가 16일 선박의 다양한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기관을 시험·실증하는 세계 최초의 해상테스트베드 건조의 시작을 알리는 강재(Steel) 절단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친환경

선박 해상테스트베드 구축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주관 하에 ㈜KTE, ㈜산엔지니어링, ㈜극동선박설계, ㈜리영에스엔디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하는데 건조는 목포시 소재

기업인 ㈜한국메이드가 담당한다.

이번에 건조하는 선박 형태의 해상테스트베드는 약 1MW급의 혼소엔진,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등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의 안전성과 성능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로 한번에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을 실험하고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 해상테스트베드는 한국선급(KR)의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친환경 선박 기자재와 대체연료의 실증 및 성능평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테스트베드 개발 외에도 2025년까지 LNG 보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더 높은 선박용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엔진 기술 개발과 함께 육·해상에서 친환경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연구시설 건립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선박 대기오염 배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화에 대한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조선·해운시장 전반도 친환경선박 체계로 발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 청계남초등학교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면사무소 탐방

무안군 청계면(면장 이해향)은 지난 16일 청계남초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나는 공부, 현장체험 관광서 탐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청계면사무소, 청계건강증진회 보건지소, 목포대학교, 청계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방문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7월 2년 연속 상동이 솟아지 출산으로 유명세를 타던 감삼시 월선3리 이장과 대화를 나눴으며, 일일 면장체험과 출생신고를 수행하며 행정업무에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탐방에 참여한 이예린 어린이는 "여러가지 체험활동과 이장님과의 대화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면장님과 이장님처럼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